

換率상승에 따른 精油社 추가부담의 解消대책이 시급하다

大韓石油協會

대 한석유허회(회장 具平會)는 지난 11월 4일 환율 상승에 따른 정유사의 추가부담 및 나프타 가격 현실화에 관한 대책을 동력자원부에 건의했다.

석유허회는 이 건의에서 『국내 환율은 지난 11월3일 현재 연초대비 6.1%가 상승하여 精油5社は 7백69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했고, 연말까지 환율이 7% 상승할 경우 정유사들의 추가부담은 총9백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』고 지적, 『83년도 결산 이전에 관련고시를 개정하여 올해에 발생한 추가부담이 해소 완료되는 시점까지 84년도 석유사업기금이 축소조정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』을 촉구했다.

석유허회는 이같은 방안은 정유업계가 이 조치결과를 금년도 결산에 반영함으로써 손실요인의 발생시기와 보정시기의 일치로 정확한 손익의 계상이 가능하고, 차관선과 주주관계를 고려한 손실의 무리한 과소반영에서 오는 악순환에서 탈피할 수 있으며, 손익의 적합한 기간귀속으로 일반국민의 오해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절실히 요청된다고 강조했다.

한편 석유허회는 국내나프타가격과 국제가격의 왜곡을 시정하고 나프타수급 원활화를 위해 국내 나프타가격

을 조속히 현실화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.

석유허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9월말까지 3개월간의 국제나프타 FOB 중간평균가격이 배럴당 31달러42센트에 이른 반면, 이 기간 중 국내나프타평균가격은 배럴당 28달러47센트로 국제가격에 비해 10.4%나 낮아 이와 같은 가격구조의 왜곡으로 수급원활화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, 『국내나프타가격을 수입나프타의 국내 도착가격수준으로 조속히 인상조정해 줄 것』을 촉구했다.

그런데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나프타가격을 조정할 때, 앞으로 매3개월 단위로 국내나프타가격과 국제기준가격이 5% 이상 변동될 경우, 국내나프타가격을 조정키로 했었는데 지난 8월 13일 나프타가격조정 때 석유화학업계가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가격의 적용대상 기간을 지난 4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정함으로써 7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의 국제나프타FOB 가격이 국내나프타가격조정에 반영되지 못한 채 다음 나프타가격조정 때 국제기준가격 적용대상기간을 7월 1일부터 기산하기로 했다. *